

비구 스님들 염화미소법 지지 ‘비구니 참종권 확대’ 직선제를...

100인 대중공사 추첨제 직선제 열띤 토론

추첨제와 직선제 간의 의견 차는 종합토론에 서로 이어졌다. 주로 종단 내 주요 소임을 맡고 있는 비구 스님들은 염화미소법을, 비구니 스님들은 직선제를 지지하는 점이 특징이었다. 서울 봉은사 주지 원명스님은 염화미소법에 찬성했다. 원명스님은 “선거의 폐해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한 분이 여기 많으실 것”이라며 “선거를 하게 되면 종단 정치와 전혀 무관했던 수좌들마저 흔들리는 것을 목도했다”고 말했다. 총무원 호법부장 세영스님은 “총무원장뿐만 아니라 교구본사 주지와 중앙총회의원도 염화미소법으로 뽑자”고 주장했다. 종단의 사회적 위상 추락을 야기하는 결정적 원인이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거나 선거절차가 잘못됐을 때이기 때문”이다. 응당 돈을 부를 수밖에 없는 선거가 악(惡)의 근원이란 입장이었다.

반면 그간 총무원장 선거에서 대다수 배제됐던 비구니 스님들은 직선제를 갈망했다.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수경스님은 “세간의 국회 의원과 대통령 선거에는 술하게 참여해왔지만 종단의 일원임에도 아직 총무원장 선거에는 참여하지 못했다”며 “선거의 본의는 보편성과 평등성임을 잊지 말자”고 강조했다. 전국비구니회 사회부장 정관스님 역시 “신지도 줄고 스님도 주는 현실에서 언젠가는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며 “대중공의를 복원하고 지도자의 대표성을 높일 수 있는 직선제로 불교의 미래를 열자”고 제안했다.

오래 공을 들인 만큼 일단 염화미소법을 시행하면서 차후 문제점을 보완해가자는 목소리도 있었다. 교육원장 현웅스님은 “각계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한 뒤 염화미소법을 공식화하고 차츰 공감대를 넓혀가자”고 했다. 중앙총회 부의장 오심스님도 “과연 직선제를 한다고 해서 금권선거를 막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금권선거 폐해 막자 VS ‘우리의’ 지도자 뽑자

각각의 장점을 종합해 절충안 만들자 의견도

각각의 장점을 종합해 절충안을 만들자는 의견도 나왔다. 염화미소법은 후보자에 대한 정밀한 갈마가 대체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를 적용하는 동시에 비구니 스님과 재가자 등에 문호를 넓히는 방향으로 선거인단의 숫자를 늘려 대표성을 강화하자는 것이었다. 결사추진 본부장 도법스님은 “사부대중 공동체를 구체화시키고 지역불교 활성화란 대의명분 아래서 더 많은 논의를 풀어나가자”고 조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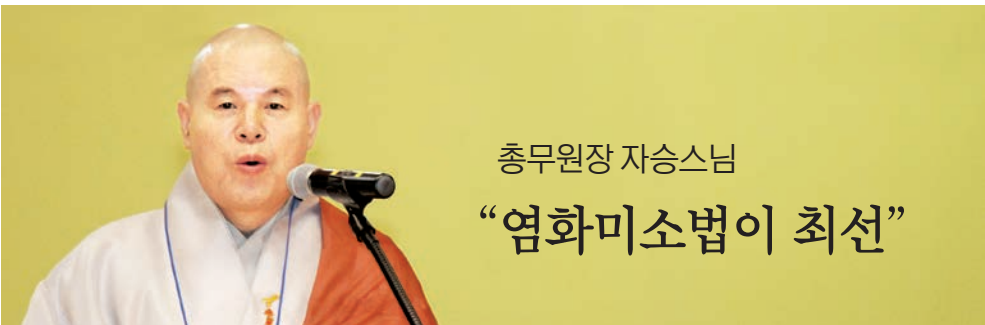
제도보다 의식이 먼저임을 지적하는 이야기도 나왔다. 결국 개인의 사사로운 욕망이 독(毒)이라는 것. 구본일 불교TV 사장은 “우리가 화합하고 협조하지 않으면 어느 분이 총무원장이 되더라도 큰일을 할 수 없다”며 “흔들지 말고 도와드리려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상대가 아무리 미워도 여태껏 개인감정으로 종단행정을 처리한 일이 없다”고 단언하며 “공사(公私)를 구분하지 않으면 다툼은 끝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종합토론을 마친 뒤 진행된 즉석 설문 조사에선 직선제를 지지하는 여론이 제일 많았다. 참석한 12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직선제는 전체 참가자의 절반인 50%가 종단을 ‘100%에서 80%까지’ 바람직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염화미소법은 가장 많은 22.9%가 ‘79%에서 60%’ 변화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교구총회 활성화를 핵심으로 한 종단쇄신위원회의 안은 최다인 31.7%가 ‘79~60%’ 구간을 택했다.

장영섭 기자



지난 3월31일 서울 불광사에서 열린 100인 대중공사에서 염화미소법을 최초 제안했던 전 호계원장 범등스님(오른쪽)이 법안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신재호 기자 air501@ibulgyo.com



총무원장 자승스님
“염화미소법이 최선”

100인 대중공사에 참석한 총무원장 자승스님(사진)은 “3가지 안 모두 장단점이 있다”면서도 “염화미소법이 단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총무원장 스님은 참석자들의 릴레이 발언에서 “오랫동안 총무원장 선거에 직접 참여하거나 개입하면서, 또한 스스로 선거를 2번이나 치르면서 많은 폐단을 느껴왔다”며 “전 호계원장 범등스님이 제안한 염화미소법의 뜻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총무원장 스님은 “여기 모인 출제자가 가운데 선거를 직접 치른 분도 계시고 멀찍이서 지켜본 분도 계시는 것”이라며 “이상과 현실 사이의 온도차를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거를 시행하면 필연적으로 승패가 갈린다. 더구나 교구중심제가 대세인 상황에서 낙선한

쪽이 현 총무원장에 반대하는 세력과 연합해 집행부를 공격하면, 종단이 파행과 혼란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는 게 요지였다.

이와 함께 염화미소법에 대한 보완책도 내놓았다. 총무원장 스님은 “여러분이 걱정하는 종정예하의 정치참여는 (의도적) 지목이 아니라 (무작위) 추첨이므로 권위를 훼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수 득표자가 당점했을 경우 대표성이 저하된다는 반론에 대해서는 “후보자의 득표기준을 25%나 30%로 상향조정하면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비구니 스님들의 참종권 확대 문제에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선학원 선거인단 할당 문제에 대해서는 “(선학원과) 관계가 경색된 만큼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장영섭 기자 fuel@ibulgyo.com

3가지 개선안 특징

염화미소법은 후보자 갈마위원회의 검증을 거친 총무원장 후보자들에 대해 선거인단(501명)이 3명을 선출하면, 종정예하가 이들 가운데 1명을 추첨으로 선출하는 방식이다. 선거인단이 기존 321명에서 501명으로 늘어나 직접민주주의의 정신을 반영할 수 있다. 무엇보다 추첨이 지닌 ‘예측불가능성’으로 인해 금품수수 및 비방폭로전이라는 선거의 폐해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소수 득표자가 당점될 경우 대표성 시비가 일 여지가 있다. 최종후보 3인으로 선정되기까지는 금권선거 가능성이 잔존한다. 종정예하의 정치참여도 권위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보인다. 궁극적으로 사회적으로 전대미문인 제도여서 그 후폭풍을 가늠할 수 없다는 것도 난제다. 제도 입안에 참여한 중앙총회의원 화평스님은 패널 토론에서 “종정예하가 선출함으로써 정통성과 도덕성을 부여하고 선거운동을 원천적으로 제한해 승가의 화합을 구현하는 데 그 개정취지가 있다”며 “대중공사를 비롯해 추후 사부대중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직선제는 말 그대로 직선제다. 비구(나) 이상 스님들 모두가 선거에 참여하자는 것이다. 현재 구족계 수지자 전원이 참여할 경우 1만883명, 승랍 10년 이상으로 제한할 경우 7988명, 20년 이상에서 자르면 5585명이 선거권을 갖는다. 참종권 확대로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총무원장의 대표성을 강화한다는 것이 취지다.

반면 본사별 제적수 규모의 차이로 인한 유력본사의 패권주의 발생, 장로 존중의 전통이 계질서 약화, 승가 전체의 정치화, 과도한 행정비용 및 인력의 소요가 고민이다. 박재현 화쟁문화아카데미 상임운영위원은 “1994년 종

염화미소법

예측 불가능...금권선거 원천 차단
대표성 시비 우려...후폭풍 가늠 못해

직선제

스님 전원 참여...대의민주주의 실현
종단 전체 정치화 염려...관리도 난항

종단쇄신위안

지역불교 포용...비구니 재가자 참여 보장
교구장 영향력 막강...직선제 폐단 답습

단개혁 당시 개혁회의 법제위원회 공청회 결과 87%가, 2013년 12월 불교미래사회연구소 여론조사 결과 75%가 직선제 도입에 찬성했다”고 전했다.

종단쇄신위원회가 내놓은 안은 지역불교 활성화를 위한 교구총회 참여가 골자다. 특히 교구총회에 비구니 스님과 재가자의 참여를 보장해 사부대중공동체를 실현하자는 것이 목표다. 아울러 교구별로 100명씩, 선거인단의 숫자를 2000~2500명으로 늘려 간선제를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하지만 교구장의 영향력이 막강한 현실과 직선제의 부작용을 답습하리란 게 한계로 꼽혔다. 정웅기 사부대중위원회 총괄처장은 “총무원장 선거에 사부대중으로 구성된 교구총회 구성원들을 참여시키는 것은 사부대중공동체라는 종단의 정신을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영섭 기자 fuel@ibulgyo.com

2015년 100인 대중공사 결의내용 추진상황

- 2차 불교, 미래세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 2016년 총무원 기획실 주관으로 미래세대 정책 토론회 추진 예정
- 3차 사찰 재정 투명화
: 2015년 예산 30억 원 이상 사찰 재정공개 시행, 2억 원 미만 사찰을 위한 회계프로그램 간소화
- 4차 종단불신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 2015년 9월 대비원력의 발신과 실천을 위한 조계종(승가장규) 제정 공포
- 5차 종단개혁과 서의현 전 총무원장 재직 결정
: 종단화합과 개혁을 위한 사부대중위원회 출범, 재심호계위원 사퇴

- 권고 및 호계원장 등 사퇴
- 6차 사부대중 공동체 어떻게 이룰 것인가?
: 2016년 사찰운영위원회 실질화를 위해 주지 인사 시 고과 반영 추진, 2016년 전체 교구 대중공사 시행
- 7차 수행풍토 진작과 승가공동체 회복
: 미정
- 8차 종단의 사회적 실천과 역할
: 노동위원회를 사회노동위원회로 확대, 2016년 교구본사 단위 사회노동위원회 설립 추진

불기 2560(2016)년도

봉축소책자 신청 안내

조계종출판사는 해마다 달력사업 수익금 중 일부를 문서포고 기금으로 전환, 봉축소책자를 발간해 달력을 주문한 사찰과 군부대, 경찰서, 교도소, 병원 등 포고 취약 대상과 지역에 무료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조계종출판사 달력을 주문해 주신 사찰 중 봉축소책자를 **‘신청하신 사찰에 한하여’** 달력 주문량의 일정 비율에 따라 무료로 보급하고자 합니다.
(**무료보급 수량 이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찰에는 특별가로 보급해드립니다**)

❖ 봉축소책자 특별보급가 ❖

- 조계종출판사 2016년도 달력 주문 사찰 : 1,200원/권
- 조계종출판사 2016년도 달력 미주문사찰 : 1,800원/권

※ 2016년 4월 30일 까지만 신청받습니다 ※

※ 봉축소책자 내용은 조계종출판사 홈페이지(www.jogyebook.c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신청 기간 및 주문처

소책자는 2016년도 조계종출판사 달력을 주문한 사찰에만 해당되며, 반드시 신청기간에 **주문한 사찰에만 무료로 보급합니다.**
(달력 주문 시 소책자를 신청하신 사찰 및 단체 포함)

조계종출판사는 한정된 재원으로 봉축소책자가 필요한 사찰에는 달력 주문량에 비례하여 주문 사찰에 한하여 보급하오니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책자의 운송비는 **해당사찰에서 지불하여야** 합니다. (단, 추가구입 사찰은 운송비 당사 부담)

- 소책자 신청은 제작과 발송기간을 고려하여 **2016년 4월 30일까지** 주문을 받습니다.

☎ 조계종출판사 · 달력부

전화 : (02)720-0677~8, 1760, 5533
팩스 : (02)720-6019
홈페이지 : www.jogyebook.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67
대한불교조계종전법회관 지하 1층
조계종출판사 달력부



화를 버리는 방법 | 일묵 스님 |
120쪽 | 크기 125mmx190mm

[차례] 1장·화, 이해하고 내려놓기 / 2장·문고 답하기 / 3장·자애경과 자애송